



# 새 인생 주신 부처님 <하>

이묘노 (고양시 탄현동)

부처님과 스님, 불자들이 아니 계셨다면 저는 이 글마저 쓸 수 없고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찌 살 수 있었습니까.

지금의 부처님 은혜에 술도 끊었습니다. 화를 부르는 술이 구정물에 불과했지만 이를 극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일지화가 술을 끊게 해주셨지요 하고 매일매일 발원했을 정도니까요.

부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존재를 사람답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봉사라는 단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습니다.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염서를 만들고 밤새도록 부처님과 할 수 있는 노래도 열심히 지어줍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염서를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못 쓰는 글이고 문장이건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질 때 책꽂이에 넣어줬다가 만드는 염서. 그것을 만들 때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실어 오늘, 내일도 일터에 갈 때 좋은 마음입니다. 우체국에 갈 때도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수라장 같고 무질서한 질서, 욕심 빼면 시체 같은 불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젊은 불자들을 위해 많은 포교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사위, 딸, 남편을 모두 절로 이끌었습니다. 완고했던 남편도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꼭 들이가고 시간도 들고 돌아 내일도 힘겹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월 속에 아내 고개고 넘어갑니다. 가을의 향기가 넘치는 맑고 높은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달이 밝은 밤빛 아래서 부처님 부처님, 노란 셔츠 입은 부처님... 부처님 빛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험하고 가시밭길 같아도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백일 기도, 천일 기도로 기도는 늘어났습니다. 하심으로 이어가는 기도가 힘들더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불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한 때 불자들과 함께 모여 불법의 모임을 이어갔으면 했던 일지화는 배운 강의내용을 오래도록 함께 나누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다. 주부들은 모이면 대부분 쓸데없는 수다쟁이가 되기 때문이죠.

항상 사랑 안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저를 과거엔 구제불능이었지만, 절에 나간 이후에 집안에서도 "부처님 믿더니 사람 됐네, 사람이 달라졌네" 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남은 여성 어떻게 불자들에게 회향할 지를 고민합니다. 궁극한 것도 너무 많아 공부도 많이 합니다. <법화경> 사경도 합니다.

업이 많은 일지화 아무쪼록 물에 씻긴 한 박은 처럼 업이 녹여지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일지화에게도 부처님 지혜가 터지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없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기도하며 일터에 갑니다. 일터에서도 찬



그림 · 김홍인

## “부처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오늘도 웃는 생활

불가를 훌쩍게 부르며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어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면서 사위도 생각하고 남편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은 없

어도 우리 부부 싸움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선사를 다니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경전을 읽을 때는 반대하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3년간 가로동 밑에서 읽었을 정도니까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따뜻한 방에서 경전 읽을 날이 언제일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금 이 시간은 따뜻한 방에서 부처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열심히 합니다. 도선사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사촌 율씨가 항상 건강하기를 발원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많이 편찮으십니다. 일지화를 부처님 결으로 이끌어주시는 언니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도선사에 가고 싶습니다. 역센 바

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들꽃처럼, 저는 보고 배운 것이 없었더라도 혼자서 오목이 마냥 일어서서 신기하지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허영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지 가슴에 묻은 자식이 보고 싶어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이 평평 쏟아지는 눈물, 너무 많이 흘려다보니 눈가는 늘상 벌겋고, 내일은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민복이 구름처럼 일어나고 액난은 눈처럼 녹아지길 기원합니다. 조그마한 깨달음 일지라도, 하루하루 가는 세월에 주름이 가득해지더라도 미소 품은 이 얼굴로 오늘도 환하게 웃습니다. (끝)

## 킬레이 수행일기 <상>

수행(修行)이라... 그동안 나는 내 삶과 수행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연유,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도 구도의 여정이 아닐까 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1988년 당시, 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늘 마음속엔 잡다한 욕구불만 등으로 내면의 모습은 몹시 화가나 있었고 마음 바탕엔 우울함이 깔려있었다. 그러던 중 손 위 시누이가 능인선원 저녁반에 등록을 시켜 놓았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니는 아이들을 둔 나는 직장에 다녔지만 마음은 늘 그 쪽으로 향했다. 가정과 직장 일보다 나에게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더 급했던 것 같았다. 선원에는 학교에 처음 입학한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놀라웠고, 그 말씀들을 통해 생활에 접어 있던 마음의 아픔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



윤승기 선덕여중 교사

었다. 인간과 동물이 구분이 없었고, 각자 모습만 다른 종생일 뿐이었다. 처음엔 그들에 대한 눈물과 충격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도 정부에 대해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이 굶주려도 병들어 죽어가는 데 무엇이 소용 있던 말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내뿜는 당당함과 편안함 속에 나도 같이 동화되었

## ‘근본’에 대한 의문 불교귀의해 탐구 인도 배낭여행 구도행의 큰 전환점

자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러면서 가끔씩 청화 스님(2003년 입적)이 계시던 태안사로 발걸음을 해 큰스님의 은은한 미소와 그분의 향기가 젖었다. 나중에는 염불선을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집 앞에 있는 마하연이라는 포교원에 적을 두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제대로 된 공부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침반 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다. 이것저것 책도 보면서 세월을 보냈지만 마음은 무엇인가를 늘 찾아 다녔다. 그 와중에도 불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되새기며 마음 한편으론 늘 감사했다.

어느 날 나의 내면에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이라는 글귀를 새겨준 분, 조용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일깨우신 분, 그분이 태어나고 깨닫고 법을 설하고 열반하신 곳,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가 보기로 하였다. 1996년 12월 겨울 방학을 맞아 학교 선생님 두 분과 같이 30일간의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인도에서의 30일간의 여행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

다. 기차의 연착을 기다리며, 동물들이 자유로이 지나다니기도 하는 기차역 바닥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니까... 인도, 그곳은 나를 감싸주고 편안함을 주고 나를 돌아보게 해준 곳이었다. 이곳은 하나의 완성된 세계이자 수행처였던 것이다. 각각의 역할로 아름답게 울릉하는 생명체라고 할까? 이곳이 아닌 것이다. 사람은 세상이나 우주의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이다.

인도 성지순례는 내 구도과정엔 큰 전환점이었다. 마치 새로운 탄생을 위해 숨죽인 누에고치처럼 나는 허영없이 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법(法)을 잊어버리기로 하였고 그냥 평범하게 나의 역할을 하며 살기로 하였다. 가끔씩 하는 좌선도 독서도 하지 않고 생활 속에 묻혀 지냈다.

그러던 98년 6월 어느 날, 다시 좌선할 기회가 생겼다. 좌선에 들어가자 너무 힘이 들었다. 오래간만에 해보는 일이라 다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쓰러질 것 같고 조금만 잠자면 눈을 감아버리고 한계를 보자며 버티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력(4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isyhy@buddhapia.com

###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10월 6일(목) 오후 3시 개강

본 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바랍니다.

**과 정**

- ① 기초반 (3개월)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① 목탁, 요령타법
  - ② 도량서, 중상, 조석예절, 사사불공
- ② 중급반 (3개월)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삼신이운, 49세 및 천도의식 일체
- ③ 작법반 (3개월)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사물, 천수바라, 승무(나비춤)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사진 3매  
\* 서 예 반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실기 교육은 원장스님께서 직접지도 함

**포항 자명선원 부설 불교의식교육원**

포항시 남구 대도동 86-31번지  
☎ 054)337-4572 / 017-516-8730  
011-544-9777 / 019-509-9448

### 제39회 3000배 철야정진

- 날짜: 9월 25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등침비 2인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개, 수련복(하의) 2개, 간단한 간식, 물병  
▶ 9월 25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간은 청소되어 피로회복과 건다건 조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기가 깎 찬 기능성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 장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 버스 : 1116(잠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열차 투입기술엔드 앞에서 하차 후 SK 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소리산참선캠프 법당앞까지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개되는 안타까운 일로 중단 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환경이 아주 좋은 분당의 태안사 대법당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동량하시서 엄장소멸과 소원정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철하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법당정사서울군자법당** ☎ 전화문의: 02)456-4994 456-0035  
**상영 소리산 법당정사** ☎ 전화문의: 031)771-7745 771-6736

###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 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환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 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호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셨지만 편안 한 마음으로 꼭 한번 체험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 (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천연구소  
TEL. 02)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 성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은 사람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 갖는 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쁨을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